

## 평가는 인민들에게서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을 보실 때마다,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평가는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

몇해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궤도전차의 시운전길에 몸소 오르시였다.

이날 궤도전차의 고르로운 동음을 한참동안이나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궤도전차를 잘 만들었다고, 보람이 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하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도안대로 만들었기때문에 잘 만들수 있었다고 말씀 올리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궤도전차를 만든것은 우리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피타는 노력으로 새형의 궤도전차를 잘 만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그러시면서 새형의 궤도전차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게서 받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좋다고 하면 좋은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는것, 인민의 감정과 요구를 떠나서는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무의미하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깨우쳐주신 일군들모두가 한생토록 간직하여야 할 삶의 좌우명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해나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